



강진 김명일



곡성 김광휘



구례 박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여수 김석철

광양시, 생활 속 원예활동 촉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

옥상텃밭·아파트 생활원에 클리닉 적극 추진

광양시는 생활 속 원예활동 촉진을 통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아파트 내 옥상 등 유휴공간에 텃밭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텃밭상자를 지원하는 '도시 속 옥상 텃밭 조성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올해 창덕에비빌 1차, 송보파인빌 5차, 송보파인빌 6차 등 아파트 3개소를 선정하고 개소당 40개의 텃밭상자를 보급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텃밭상자에서 누구나 손쉽게 편리하게 채소를 재배하면서 수확물 나눔을 통해 주민

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이끌어 갈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어 가고 있다. 특히 텃밭을 찾아 멀리 갈 필요가 없이 아파트 내에서 직접 재배한 신선한 채소를 가족들과 함께 먹을 수 있어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와 함께 도심지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관엽식물 분재 등 원예작물 재배기술과 분갈이 및 병해충 방제 요령 등을 교육하는 '아파트 생활원에 클리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대상 아파트로 직접 찾아가 가정에서 키우는 식물에 대

한 애정을 더하고 건강한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기초적인 식물관리 요령을 숙지하도록 지도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분갈이를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시는 오는 28일까지 아파트로부터 사업 신청을 받아 10월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김영배 도시농업팀장은 "최근 건강한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도시민이 직접 농업에 참여하거나 전문적인 생활원에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도시농업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과 사업을 실시해 도시와 농촌이 상호 협력하는 관계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승호 기자

순천만국가정원, 가을 정원갈대축제 개막



이와 함께 부대프로그램으로 '풍선&매직쇼', '뮤지컬양상발', '동물교감체험' 등이 진행된다. 순천만국가정원 사계절 축제를 대표하는 프로그램은 단연 '퍼레이드'다. 올해 가을 축제 퍼레이드는 전형적인 서양식의 퍼레이드에서 벗어나 7080 시대 추억의 디스코장, 플러스케이프장에서 흘러나오던 친숙한 음악으로 관람객의 옛 추억을 소환할 예정이다. 퍼레이드는 평일 11시, 14시, 주말 및 공휴일 11시, 14시, 16시에 운영된다. 국가정원의 가을밤을 만끽할 수 있는 'fall in 감성' 콘서트도 개최된다. 동천갯벌공연장에서 총 4회에 걸쳐 진행되며 추석 연휴기간인 24일에는 아카펠라 그룹 M-Seed가, 25일에는 어쿠스틱 감성 발라드 로이킴의 미니콘서트가 18시 30분부터 19시 30분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로이킴은 이날 데뷔곡이자 그를 최정상 뮤지션으로 이끈 '뽀뽀'와 최근 히트곡 '그때 헤어지면 돼' 등 10여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가을 정원갈대축제'에서는 관람객의 참여 프로그램이 눈에 띄게 늘었다. 순천=김승호 기자

한국정원에서 펼쳐질 공포체험 '귀+신과함께'는 요즘 관광 트렌드를 반영한 관람객 공포체험 프로그램으로 한국정원에 대한 새로운 관광 문화를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귀+신과함께'는 지역별차 운영, 4대 지역체험, 비비이의 귀신무 공연 등이 다채롭게 구성됐으며, 체험 코스를 완주한 체험객에게는 소정의 사은품도 증정할 계획이다. 운영은 주말과 공휴일 18시부터 21시까지 운영되며 회당 체험시간은 30분 정도이다. 어린이 관람객을 위한 특별 체험 이벤트도 진행된다. 레트로&디스코 퍼레이드 운영 시 현장 접수를 통해 회당 5~10세 어린이 7명이 퍼레이드에 탑승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실감나는 체험을 위해 퍼레이드 콘셉에 어울리는 의상과 페이스 페인팅을 무료로 제공한다. 접수는 퍼레이드 운영 1시간 전까지 세계의상 체험부스(동문 입구 왼편)에서 할 수 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국가정원을 찾는 어린이들에게 최고 인기가 있는 '동물교감체험'이 조류장 옆 야생동물원에서, 풍선&매직쇼가 바로 옆 물새놀이터에서 진행 예정이다. 순천=김승호 기자

보성군 김철우 군수 소외계층 위문

사회복지시설 등 위문품 전달과 사랑의 밑반찬 나눔



보성군은 지난 19일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지역의 어려운 이웃과 사회복지시설 등을 위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별교을 소재 '작은자의 집' 방문을 시작으로 '보성군행복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가 성인용기저귀, 세제 등 위문품을 전

달하고, 입소 어르신들과 함께 즐거운 담소로 정을 나눴다. 또한 시설 종사자들을 격려하며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보성군은 10일부터 관내 소외되고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 사회취약 계층(기초수급자, 독거노인, 장애인, 보호대상자 등) 총 1,461세대에 3천 4백만 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해 오고 있다. 한편, 같은 날 여성회관에서는 보성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회장 김영희) 회원 30여 명이 모여 추석맞이 사랑의 밑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열무김치와 장조림 등을 만들어 12개 읍면 독거노인 및 생활이 어려운 이웃(85가구)에게 전달했다. 보성군여성자원봉사협의회는 20년 가까이 매년 명절뿐만 아니라 수시로 뜻을 모아 지역주민을 위해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장흥군, 추석연휴 독거 어르신 집중 안전확인 실시

장흥군은 홀로 사는 어르신들이 외로움을 느끼는 시기인 추석에 맞아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일환으로 독거노인생활관리사를 파견하여 취약 독거노인 1,242명에 대해 명절 전에 직접 방문을 통한 안부확인 연휴 기간 2회 이상 직

간접적으로 안부를 살피고, 명절 다음날에는 반드시 가정을 방문해 건강 상태를 확인할 계획을 알렸다. 아울러, 독거노인응급안전알림장비가 설치된 독거노인(140명)을 대상으로 점검하여 추석연휴기간

동안 응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응급상황발생시 119와 연계하여 신속대응 하도록 준비를 하였으며,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추석연휴 기간 독거노인 보호 추진 관련 동향 전파 및 위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하였다. 순천=김승호 기자

'제24회 광양시민의 날' 개최

내달 7일~8일 시민화합한마당...다채로운 문화예술 행사 펼쳐



광양시는 오는 10월 7일부터 8일까지 이틀간 '제24회 광양시민의 날' 행사를 개최한다. 이번 시민의 날 행사는 격년제로 열리는 옥외행사로 10월 7일 저녁 7시 시청 앞 광장에서 전야제를 시작

으로 10월 8일 오전 9시 광양공설운동장에서 본행사가 진행된다. 먼저 전야제 행사로 EDM Party, 태진아, 신재(코요태), 체리나, 권선국(녹색지대) 등 인기가수와 지역에 술인 초청 공연, 불꽃놀이로 시민들

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다. 이어, 다음날 열리는 본행사에서는 전통키보드 시연과 드론쇼로 이루어진 식전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시민의 상 시상, 성화점화, 민선7기 비전선포 등 기념식이 진행된다. 또 시립예술단 공연과 계층별·장르별 댄스시연, 축구, 배구, 씨름, 게이트볼 등 각종 체육행사가 개최되며, 민속놀이, 명랑운동회, 읍면동 노래자랑으로 구성된 시민화합한마당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어린이 놀이와 함께 드론·전통키보드, 도자기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등 각종 체험부스가 준비되어 있으며, 자매도시와 지역의 특산물 홍보부스도 운영된다. 이와 함께 제24회 광양시민의 날을 기념하는 문화예술 행사가 곳곳에서 펼쳐진다. 광양=김승호 기자

보성군, 추석연휴 기간 '24시간 종합상황실' 가동

보성군은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공무원 132명을 투입하여 추석연휴 24시간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본청은 6개 반 72명, 12개 읍면은 60명으로 총 132명이 편성됐다. 투입된 인원은 교통, 물가, 연료수

급, 환경, 보건, 재해·재난·안전, 산불 등 10개 분야를 관리하며, 상황실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한다. 군은 이번 달 초부터 군민이 모두가 풍요롭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소외계층 위문과 각종 시설방문 사전점검에 나섰다. 보성=안구일 기자

연휴기간 중 귀성객의 원활한 수송을 위해 대합실, 매표소 주변 시설물 정비 및 관리, 농어촌버스 정류장 및 승강장 청결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연휴기간 중 교통서비스 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www.jepa.kr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신행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진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무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면역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의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맞춤형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진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별 요소 확인 및 시정 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적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절한 인사관리방안 안내